

직지축제의 성장과 발전방향

김 현 기*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로 인쇄 간행된 직지는, 1972년 ‘세계 책의 해’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던 직지하권이 ‘세계 책 전시회’에 출품됨으로서 그 존재가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1985년 운천동택지 조성과정에서 직지를 주자 인쇄한 흥덕사 터를 찾게 되었고, 1986년에 흥덕사지가 사적 제315호로 지정됐다. 이후, 1992년 청주고인쇄박물관이 설립되었고, 1995년 청주인쇄출판축제가 개최되었으며, 한국의 옛 인쇄문화 국내외 순회전이 미국 프랑스 등지에서 이어졌다. 또한 직지는 청주시민회(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직지찾기 운동본부’를 결성해 전국적으로 직지 찾기에 나섰으며 이를 계기로 지역사회에 직지문화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했다.

2000년 청주국제인쇄출판박람회가 개최되었으며, 2001년 유네스크세계기록유산 등재와 2002년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국어교과서에 직지가

수록되었다. 2003년에는 직지의 날이 제정되고 직지의 세계화 전략이 수립 되어 2003년에 청주직지축제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이후 2010년까지 여섯 번의 축제가 개최되었으며 청주고인쇄박물관을 중심으로 직지문화특구가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운동으로 청주의 정체성과 비전을 직지에서 찾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직지문화운동 과정을 살펴보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단체의 능동적인 사업추진이 함께 어우러져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민관이 공동으로 합심하여 추진한 결과 타 지역 문화운동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룩한 것이 사실이다¹⁾.

이러한 직지문화운동의 대표적 상징으로 2003년부터 청주직지축제가 개최되어왔으나 아직까지 청주와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실시되었던 직지축제의 결과물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성과를 알아보고, 문제점들을 찾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그를 통해 청주직지축제가 청주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축제이자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김현기, 주소: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삼성아파트 6-102, 전화: 010)5459-0987, E-mail: rekkim@hanmail.net

* 청주직지축제 집행위원장, 여가문화연구소장, 체육학 박사, 전)주성대학여가문화학과 교수

1) 청주시, 직지축제의 진단과 발전방향(2005)

1.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되었던 직지축제와 관련한 축제 결과보고서와 각종 성과 분석자료, 회의자료, 관련 연구물들을 중심으로 각 보고서와 연구결과물이 제시한 성과와 문제점,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연계 분석하는 문헌분석 연구방법으로 실시하였다.

2. 직지축제 운영결과 분석

2.1 결과 분석

2003년부터 시작된 청주직지축제는 2010년까지 총 6회가 진행되었으며 그 운영 결과는 표 1과 같다.

청주직지축제는 2003년에 시작되었으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은 매년 개최되었고 이후에는 청주공예비엔날레와의 시·공간적 중복 문제로 인해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으며 직지축제가 없는 해에는 ‘유네스코직지상 시상식’이 열리고 있다. 직지축제가 실시된 날짜와 기간은 대부분 직지의 날인 9월 4일을 전후로 하여 평균 4일간 실시되었다. 그러나 2005년에는 4월로 날짜를 옮겨 시민체육대회와 연계하여 3일간 실시하였고,

2006년에는 가장 길게 7일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는 날씨관계로 인하여 9월 하순으로 이동하여 6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직지축제의 주제는 매년마다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직지의 시대정신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주제는 중복된 것은 없었으며, 돋움에서 펼침으로(2003), 소통(2004), 어울림(2005), 나눔(2006), 상상(2008), 공감(2010), 1377 창조의 빛(2012)으로 정해졌다. 직지축제의 장소는 매회마다 청주예술의 전당이 중심이 되고, 청주고인쇄박물관이 연계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2012년에는 축제의 중심 축이 청주고인쇄박물관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기획하고 있다.

축제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중요한데 청주직지축제에 투입된 예산은 매년마다 일관성 없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게는 2억3천만원에서 가장 많게는 7억4천5백만원까지 소요되었다. 또한 직지축제에 참가한 관람객 수는 대략의 추계로 발표하는데 매회 약 6만 명에서 11만 명 정도가 축제를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총 6회의 축제가 열렸고 투입된 예산은 전체 24억원이며, 관람객 수는 53만5천명으로 추산된다.

표 1. 청주직지축제 연도별 주요결과

구분	연도	날 짜	주 제	소요예산	참여인원
1회	2003	9. 4~9. 7(4일)	돋움에서 펼침으로	300,000,000원	60,000명
2회	2004	9. 2~9. 5(4일)	소통	745,000,000원	100,000명
3회	2005	4. 15~4. 17(3일)	어울림	230,000,000원	80,000명
4회	2006	9. 4~9. 10(7일)	나눔	450,000,000원	110,000명
5회	2008	9. 4~9. 7(4일)	상상	300,000,000원	112,000명
6회	2010	9. 3~9. 4(4일)	공감	400,000,000원	73,000명
7회	2012	9. 18~9. 23(6일)	1377, 창조의 빛	500,000,000원	
계				2,925,000,000원	535,000명

출처 : 직지축제 연도별 결과보고서에서 요약정리(청주직지축제추진위원회)

이러한 운영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직지축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청주직지축제에 대한 합리적인 예산 투입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축제에 관한 예산편성은 기본적으로 도의 투용자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10억원을 한계선으로 하여 단체장의 정책방향이나 관심사항, 주무부서와 담당자의 의지, 의회의 반응, 청주시의 예산상황 등에 따라 편성되기 때문에 축제의 기본적 운영과 준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도시의 규모와 예산상태, 축제를 기본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초 경비의 산출, 타 지역 축제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청주직지축제가 안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한 표준적인 운영예산이 산출되어 매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축제의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축제는 매년 개최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직지축제는 2006년도까지는 매년 개최되었으나 그 후로는 공예비엔날레와 시·공간적 중복과 한 해에 두 개의 축제를 함께 치루기 어렵다는 의견 등으로 인해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상 비엔날레와 직지축제는 그 성격자체가 다르며 2011년 비엔날레가 옛 연초제조창으로 장소를 옮긴 상태이므로 이제는 정상적인 직지축제 운영을 위해 매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최근 들어 9월 같은 시기에 ‘청주읍성축제’가 시행되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위험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직지축제가 청주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같은 시기에 다른 축제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직지와 청주라는 큰 틀에서의 통합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즉 청주의 문화적 상징으로 직지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읍성축제는 직지축제의 하위영역으

로 편입하여 직지축제추진위원회가 일관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 직지축제는 매년 개최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청주의 대표축제, 아니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셋째는 직지축제의 장소적 상징성 약화이다. 직지는 원본이 청주에 있지도 않으며 축제가 펼쳐지는 장소가 명소이지도 않다. 매년 축제의 주 무대는 청주예술의 전당 광장을 이용하고 야외에 천막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기존 문화시설을 활용해 단기적으로 실시하는 관계로 축제가 종료하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주고인쇄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직지문화특구를 직지축제의 장소적 상징성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축제는 일정한 공간으로 사람들을 끌어 모은 다음 에너지를 집중하여 폭발시키는 형식이다. 따라서 직지를 상징화 할 수 있는 장소적 하드웨어를 빠른 시일에 완성해야 한다. 향후 금속활자 주조 전시관을 비롯해 유럽의 인쇄문화 전시관 등 다양한 인쇄문화를 시연하고 볼 수 있는 시설과 고려의 우수한 문화적 환경을 재현하는 장소 마케팅을 통해 사람들에게 직지와 축제 그리고 청주고인쇄박물관이 중심이 된 장소적 상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2.2 조직 분석

기본적으로 직지축제는 청주시에서 위촉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청주직지의 날 추진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해당되는 위원들은 초기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선임했고, 이후에는 ‘직지세계화 추진단’이 그리고 현재는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추천하는 사람들로 시장이 위촉하고 있

다.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청주직지의 날 운영조례’에 따라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위원 중에서 호선을 통하여 민간 위원이 부위원장 겸 집행위원장을 맡아 축제를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직지축제에 대한 기획이 만들어지고 행정이 집행되는 실무적인 조직은 ‘사무국’이다. ‘직지축제사무국’은 민간전문가와 문화산업진흥재단의 직원, 그리고 행정책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상호 연계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모든 기획의 출발은 바로 사무국에서 시작된다. 물론 기본적인 축제의 방향은 주

무부서와 추진위원회에서 제시되지만 이를 구체화하고 아이디어를 더하여 축제의 프레임과 컨셉, 세부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실무단위는 사무국이다. 사무국에서 만들어진 기획은 집행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고 이 안건이 추진위원회에 상정되어 최종 결정되게 된다. 따라서 축제의 성공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축제사무국’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의사결정을 거치는지에 따라 그 성격과 방향이 확연하게 달라진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조직된 축제사무국의 구성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청주직지축제 사무국 운영현황

연 도	구 성 현 황
2003	- 집행(운영)위원장, 사무국장 ▶ 민간 전문가 - 총괄운영은 문화산업진흥재단 직원이 파견근무 - 문화관광과와 박물관에서 공무원이 파견되어 함께 참여함
2004	- 집행(운영)위원장, 사무국장 ▶ 민간 전문가 - 총괄부장 및 팀장 ▶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파견 근무 - 민간외부인력(회계) 1인 - 직지세계화 추진단 지원
2005	- 집행(운영)위원장 ▶ 재단 사무총장 - 사무국장 ▶ 재단문화사업팀장 담당 - 팀장 및 팀원 ▶ 재단직원 파견근무 - 직지세계화 추진단 지원
2006	- 집행위원장 ▶ 기획행정국장 - 사무국장 ▶ 재단 문화사업팀장 담당 - 팀장 및 팀원 ▶ 문화산업진흥재단 파견 근무 - 직지세계화추진단 지원
2008	- 집행위원장 ▶ 민간 전문가 - 사무국장 ▶ 민간 전문가 - 팀장 및 팀원 ▶ 민간전문가 + 민간대행사인력 - 청주고인쇄박물관 직지사업과 파견근무
2010	- 집행위원장 ▶ 민간 전문가 - 사무국장 ▶ 재단 문화사업팀장 담당 - 팀장 및 팀원 ▶ 문화산업진흥재단 직원 파견근무 - 청주고인쇄박물관 직지사업과 파견근무
2012	- 집행위원장 ▶ 민간 전문가 - 사무국장 ▶ 재단 문화예술팀장 담당 - 팀장 및 팀원 ▶ 문화산업진흥재단 직원 파견근무 - 청주고인쇄박물관과 직지사업과 파견근무

출처: 직지축제 연도별 결과보고서에서 요약정리(청주직지축제추진위원회)

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무국의 책임자는 집행(운영)위원장이자, 집행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이자, 당초 직지축제가 민 주도로 운영하기 위한 정책으로 위원장은 시장 혹은 부시장²⁾이 맡고 민간 주도 축제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 추진위원 중에서 한명이 부위원장 겸 집행위원장을 맡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2005년, 2006년에는 민간추진위원회라 할 수 없는 재단 사무총장과 시의 기획행정국장이 집행위원장을 맡음으로서 효율성에서는 성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민간 주도라는 축제의 기본 정신과는 배치되게 되었다.

또한 사무국에서 실제 행정의 실무책임은 사무국장이 맡게 되는데 전체 7번의 축제 중에서 4번을 재단 팀장이 담당하였다. 또한 총괄부장이라는 직책으로 2번을 재단팀장이 담당하여 실무를 총괄한 결과 실제로 직지축제는 ‘문화산업진흥재단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집행위원장 마저 민간이 배제되게 되면 ‘직지축제’는 민간이 배제된 관 주도 축제로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단선화된 조직을 갖게 되면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전체의 축제로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직지축제추진위원회에 시민사회단체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집행위원장은 반드시 민간위원 중에서 담당해야만 한다. 또한 사무국운영 역시 집행위원회 중심의 민간조직으로 구성되고, 공무원과 재단의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운영하는 방식의 민간 주도형 조직구성 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2) 현재 시 조례에는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게 되어 있다. 그러나 첫째 추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어 시장이 2회까지 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나 이후에는 시장은 대회장이라는 역할을 하게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맡는 것으로 되었다.

2.3 내용 분석

축제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행사의 내용 즉 콘텐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직지라는 정형화된 ‘책’을 소재로 한 직지축제에서는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축제에 활용하는 창조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직지축제 행사는 보통 공식행사, 전시행사, 체험행사, 공연행사 등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된 직지축제의 주요행사를 정리해 보면 표 3과 같다.

직지축제에서는 매회 다양한 전시, 공연, 체험, 부대, 연계, 공식행사가 진행되었다. 다른 축제와 달리 ‘직지’라는 문화 원형도 청주에 없고 명소가 될 수 있는 장소도 부족하고, 직지를 소재로 한 다양한 스토리텔링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회 개최되는 직지축제는 그야말로 소재와 아이디어의 부족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매회 실시된 축제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매회 연속적이고 몇 회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된 프로그램은 5학년은 다모여라, 고려퍼레이드, 금속활자 주조 재현, 한지 체험, 배첩체험, 평생학습 동아리 발표, 직지 인형극 등이 있다.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매회 상황에 따라 실시되고 다음해는 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직지라는 주제와 연계된 행사는 주제공연 상상 지식창조의 힘, 동·서양 인쇄비교 시연회, 북 페어전, 전통 책 만들기 정도이며 나머지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반 행사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직지축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축제 콘텐츠에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여러 가지 행사를 직지라는 이름으로 꿰어 맞추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직지축제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과 연속성을 갖는 콘텐

표 3. 청주직지축제 연도별 축제 콘텐츠

연도	주요 내용
2003	직지음악회, 오페라 직지공연, 우수도서 전시, 세계기록유산 특별전, 조선초기 금속활자 특별전, 현장학습 5학년은 다모여라, 직지학생 백일장, 직지학생 사생대회, 직지 인형극, 고려 퍼레이드, 고인쇄문화 학술대회, 실버문화축제, 직지 달맞이 놀이, 학습도시 청주 북스타트, 평생학습 동아리 발표회, 직지 만물상, 직지의 거리 선포식, 풍물 총집합, 직지 대강연회, KBS 직지 콘서트, 직지와 청주 영상 콘테스트, CJB 라디오티어링 시민 걷기대회, 직지 무용공연, 직지지역화 그리기
2004	고려퍼레이드, 옛 책의 아름다움, 좁쌀책 전시, 직지문화상품 특별전, 직지 e-game 월드컵, 직지콘서트, 직지메아리, 직지춧불탑, 직지장터, 고려주막, VJ콘테스트, 전국사진촬영대회, 5학년은 다모여라, 직지로의 여행, 평생학습 전국동아리 경연대회, 직지동화구연전국대회, 직지청소년예술상, 직지학술대회, 직지전국학생토론대회, 금속활자구조재현, 직지와 판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워크샵, 오페라 직지, 구텐베르크 특별전
2005	고려퍼레이드, 직지장터, 고려주막, 평생학습동아리경연대회, 5학년은 다모여라, 청주시민 걷기대회, 어린이 사생대회, 향토구상작가 초대전, 새터민 평양예술단 공연, 직지사랑 가족음악회, 동호회 공연, 관악제, 직지사랑 분재전, 청주삼백리보디빌딩대회, 금속활자구조체험, 한지, 배첩 시연회, 공예체험, 웰빙체험
2006	유네스토 아/태지역 기록유산 워크샵, 현장체험학습, KBS 전국노래자랑, 직지창작가요제, 고려사경특별전, 시민음악회, 해외우호도시공연, 평생학습동아리경연대회, 은빛사랑/사랑나눔 한마당, 주한외교대사 부인회 자체행사, 사회복지축전, 외국인문화체험, 외국인 장기자랑, 중요무형문화재 공연(줄타기), 퓨전국악공연, 어린이사생대회, 주말공연(밸리댄스, 마칭밴드, 새터민예술공연, 퓨전타악, 바디페인팅 퍼포먼스), 청소년거리축제, 가족음악회, 천년대종을 울려라, 직지전국사진공모전 시상, 청소년문화체험 한마당, 직지국제서예대전, 직지와 사람들 특별전, 직지전국사진공모전, 청주 옛 사진전, 추억의 교실여행전, 고려시대 두발·의상전, 나만의 우표전, 인쇄기기전, 직지인쇄문화체험(금속활자, 각자, 배첩, 한지, 대장간), 공예체험, 웰빙체험, 대형직지퍼즐맞추기, 직지장터, 청주지역특산물판매전, 직지먹거리
2008	주제공연(상상, 지식창조의 힘), 동·서양인쇄비교전시회, 배첩장 시연, 한지만들기, 전통책 만들기, 북페어전, 직지홍보관, 오국진 유작전, 학술행사, 주자소의 하루, 내가 만드는 금속활자, 커뮤니케이션 역사관, 고려퍼레이드, 고려여행, 상상 문화학습촌, 직지인형극, 주간 공연행사, 야간공연행사(BIG 5), 기타연계행사
2010	5학년은 다모여라, 직지 바로알기, 아름다운 청주 만들기, 책 읽는 버스, 포토존, 고려주막, 청주사랑·직지사랑 미술대축제, 기록사랑 청소년백일장, 전시행사(커뮤니케이션 역사존, 디지로그 문화존, 정보미디어 산업전), 고인쇄문화체험(금속활자, 한지, 배첩), 팔만대장경 인경체험, 가을밤 음악풍경, 음악 꿈나무, 직지가요제, 직지인형극, 어린이 뮤지컬 직지속으로, 청주지역 공연문화단체 발표회, 기타 연계행사(주민자치센터 발표회, 직지세계문자서예대전 등)

출처: 직지축제 연도별 결과보고서에서 요약정리(청주직지축제추진위원회), 공식행사와 부대적인 단순한 체험행사는 제외함

츠를 시급하게 개발해야만 한다. 여기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금속활자를 포함한 각종 인쇄술을 시연하고 이를 볼거리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박물관이 중심이 되어 직지문화특구 내에 다양한 인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상설화된 시설을 조속하게 건립하

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직지의 원형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이를 문화와 예술이라는 장르를 통해 수준 높게 표현할 수 있는 직지문화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 모범적 사례로는 ‘주자소의 하루’와 같은 마당극 형태의 공연과 스토리텔링으로 전개된 ‘고려 퍼

레이드'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직지문화콘텐츠는 단순히 박물관 차원이 아니라 시의 문화관광과, 시립예술단, 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이 함께 참여하여 청주를 대표하는 직지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상설공연으로 활용할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정되고 부족한 축제 예산으로 이 일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주직지문화콘텐츠'라는 프로젝트를 별도의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직지오페라와 같이 너무 거대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작품보다는 더 대중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규모의 프로그램이 적당하다.

3. 직지축제 성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분석

직지의 날 추진위원회에서는 매년 축제가 끝나고 난 뒤 자체적인 결과보고서와 외부 평가용역 연구보고서를 발행한다. 여기에서 매년 축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찾고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보고서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현장의 정책으로는 연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 방식은 스스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추진위가 발행한 결과보고서와 용역 평가보고서의 결과를 표 4로 정리하여 축제의 성과와 한계 발전 방향을 가늠해 보았다.

추진위의 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볼 때 직지축제가 이룬 가장 큰 성과는 첫째로 직지를 대중화 것이라 할 수 있다. 축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주시민은 물론 다른 지역 사람에게도 직지와 청주를 널리 알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청주의 도시 정체성을 직지를 통해 정립하였다는 것이며 시민들에게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비전을 갖게 했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셋째는 축제의 새로운 모델인 '학습형 축제' 모델을 제시했고 이에 대한 방향을 알려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지축제가 개최될 때 마다 지속적으로 제시된 문제와 과제는 첫째로 직지축제를 운영하는 조직의 상설화 이다. 둘째는 직지축제의 대표적인 콘텐츠 개발이다. 셋째는 청주의 지역 정체성과 발전방향이 직지와와의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넷째는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실제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다른 행사와의 차별화된 노력과 연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는 청주직지축제를 더욱 발전하는 축제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청주직지의 날 추진위원회가 매회 발간하는 공식 자료인 결과보고서와 성과분석 보고서, 그리고 관련 연구논문들을 검토하는 문헌연구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분석결과 나타난 직지축제의 성장과 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과제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지축제는 무엇보다 매년마다 열려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직지축제는 시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축제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추진위원회와 축제 운영에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더 활발하게 보장되어야만 한다.

셋째, 직지축제의 실무부서인 '사무국'을 창의적이고 안정적인 체계로 만들기 상설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무국은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간이 중심이 되고 필요한 전문 인력을 시와 재단에서 파견 받아 운영하는 민간 중심형 조직으로 변화 시키고 안정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넷째, 축제를 보다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사전 예산의 확보와 함께 직지축제의 표준화 된 예산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 4. 청주직지축제 연도별 성과분석 요약

연도	주요내용	
2003	성과	직지의 대중화에 기여, 청주의 도시정체성과 비전제시, 학습형 축제의 모델을 제시, 직지를 청주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세대통합과 가족참여 축제의 시도, 지역사회 네트워킹 강화, 주제형 축제의 정착, 야간형 축제의 모델제시
	문제	창작과 실험정신의 부족, 퍼레이드의 새로운 소재로 시민 적극참여 필요, 세계기록유산 특별전의 생생한 체험 부족, 예산·홍보·준비기간 부족, 지역축제 한계 극복과 자발적 참여 유도
	개선	청주공예비엔날레와의 관계 정립, 각종 경연대회 ‘직지 예술상’으로 통합추진, 복잡한 인적구성 해결, 고려퍼레이드와 직지 달맞이 등 행사 연계 일원화, 직지관련 문화상품 개발, 홈페이지·영상·애니메이션·인터넷 생중계 등 IT 분야 대폭 보강, 축제의 일원화·전문화·상설화 등 운영 시스템의 정비
	정책	직지축제에 대한 학술적 정립, 직지사랑 운동의 지속과 시민운동으로 승화, 직지에 고나한 기초 인프라의 충실화, 직지 기본소재의 개발 노력, 학습도시 건설의 비전과 발전계획 수립, 직지 CI 개발 조속 완료, 직지 상품 개발과 이미지 브랜드화, 직지축제의 전국화와 세계화의 구체적 전략 수립, 사무국 운영의 전문성과 상설화
2004	성과	학습축제로써 직지축제의 정체성 확보, 직지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구축, 국가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 유도, 직지축제의 대표 브랜드 행사 개발, 직지축제 IT 운영 기반 구축,
	과제	축제 추진 조직 정비와 상설화, 직지체험학습 콘텐츠 개발, 직지 원형과 소재에 대한 연구개발, 평생학습도시와의 연계 프로젝트 추진, 국가차원의 지운 확보, 직지축제 형태의 개선, 직지 인프라의 구축, 지역사회 네트워킹의 강화
2005	성과	축제의 즐거움을 학습과 연계, 시민 참여형 축제
	과제	준비기간을 늘여야 함, 봄/가을 개최 시기 문제 조정, 공예비엔날레와의 관계 정립, 직지세계화 추진과 박물관과의 관계성 정립, 시스템 정비, 직지 아이템의 개발
2006	과제	세계기록유산으로서의 직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차원의 지원방안 수립, 청주를 상징하는 대표축제로의 청주직지축제의 규모 확대, 직지축제를 준비하는 상설기구의 설립을 통한 발전추진, 직지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축제로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와의 공조체계구축, 축제를 상징하는 대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공모 추진
2008	성과	새롭고 창의적인 직지문화 콘텐츠 개발이 시도되어 좋은 결과를 얻음. 학습의 즐거움을 간직한 청주만의 학습형 축제 프로그램을 선보임, 관람객 중심형 테마파크 축제를 시도,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축제를 운영, 이미지 통합관리를 통해 주제형 축제를 구현,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 증가로 직지축제의 참여도를 높임
	과제	보다 완성된 중심행사의 준비가 필요, 조직체계의 상설화와 안정된 사전 예산의 확보, 직지관련 메가이벤트 필요
2010	성과	과거의 전통을 계승하고 직지의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조명, 직지축제 고유의 학습형 축제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의 장을 만들, 축제의 재미를 만끽한 다양한 공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축제를 운영, 권위주의적인 행사의 틀을 탈피하여 새로운 시도를 함으로써 신선함을 줌, 시민 아이디어 참여가 확대되어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가 됨
	과제	전시관 콘텐츠와 폭염 등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 추진 조직의 안정이 필요, 축제 시기 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 축제의 정체성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 적극적인 관람객 유인 방안 강구

출처: 직지축제 연도별 결과보고서에서 요약정리(청주직지축제추진위원회)

다섯째, 축제의 상징성과 차별성을 높이기 위해 박물관 중심으로 특성화된 거리와 시설을 보다 충실하게 준비하는 '직지특구'의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며, 대표적인 축제거리를 개발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아울러 직지축제의 중심축이 박물관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만 한다.

여섯째, 직지축제는 학습형 축제로 성장하고 발전해야만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고 축제의 독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미있고 즐거운 학습과 성장이 만들어지는 직지축제가 말로 청주의 전통적 이미지와 발전적인 미래 이미지와 연계 될 수 있다.

청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직지의 가치는 시대가 따라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적극 활용하는 창의적인 노력 자체가 바로 직지의 중심 가치인 창조정신을 발휘하는 것이다. 직지를 통한 지역 발전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청주의 가장 소중한 정신이자 문화유산이다.

참 고 문헌

- [1] 송우영, 청주직지축제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예술대학원 석사논문, 2010.
 [2] 오현애, 직지축제를 통한 청주시 지역정체성의 재구성에 관한 연구, 서원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9.

- [3] 청주시, 「2003 청주직지축제 결과 보고서」, 청주직지축제추진위원회, 2003.
 [4] 청주시, 「2004 청주직지축제 결과 보고서」, 청주직지축제추진위원회, 2004.
 [5] 청주시, 「2005 청주직지축제 결과 보고서」, 청주직지축제추진위원회, 2005.
 [6] 청주시, 「직지축제의 진단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 2005.
 [7] 청주시, 「2006 청주직지축제 결과 보고서」, 청주직지축제추진위원회, 2006.
 [8] 청주시, 「2008 청주직지축제 결과 보고서」, 청주직지축제추진위원회, 2008.
 [9] 청주시, 「2010 청주직지축제 결과 보고서」, 청주직지축제추진위원회, 2010.



김 현 기

-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여가문화전공)
- 전) 주성대학 여가문화학과 교수
- 현) 여가문화연구소장
- 2012청주직지축제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겸 집행위원장
- 청주시 예술단 운영위원
- 충북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사회조사연구소장